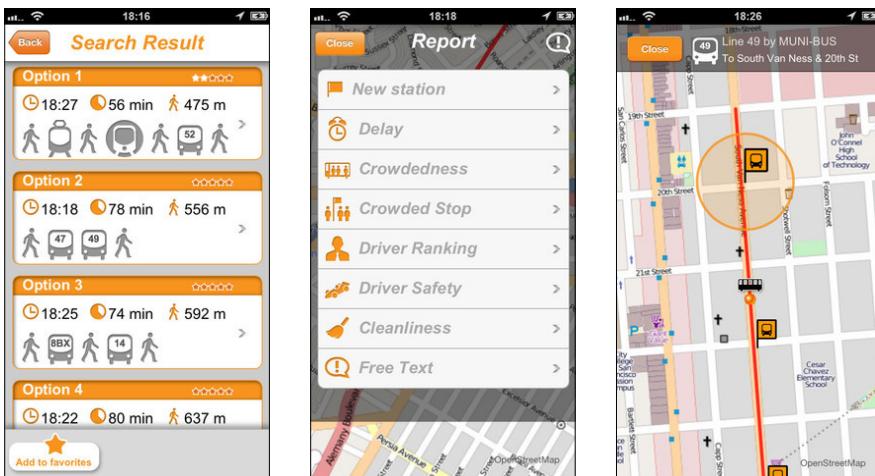


헤드 라인 뉴스 (도시 교통)

1. 앱을 이용해 대중교통 혼잡도 관련 정보 제공 (미국 시카고市 외)

- 최근 이스라엘 개발자가 개발한 Moovit 시스템이 세계 여러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음. Moovit은 일반 앱 유저로부터 버스나 지하철의 혼잡정도에 대한 정보를 모아 다시 유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 이 시스템은 앱 유저에게 자동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혼잡정도나 무선인터넷환경 제공 여부, 청결상태 관련 정보 등을 물어보고 앱 유저가 이에 답함으로써 정보를 생산하게 됨. 또한 자동적으로 차량의 속도, 위치 등에 대한 기본정보도 함께 모아 일정 정도 가공 후 다른 대중교통 이용이나 환승을 위해 대기 중인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줌.
 - 현재 7개국 2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총 40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시카고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종으로 이용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 서비스의 성공요건은 초기 많은 유저들의 참여도인데 현재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 다른 도시에서도 성공 가능성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착시간, 대기시간,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해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Moovi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

(<http://gigaom.com/2012/12/27/transit-app-moovit-takes-a-page-from-waze-crowdsourcing-playbook/>)
(http://www.fastcoexist.com/1681190/an-app-that-uses-frustrated-riders-phones-to-tell-you-that-the-bus-will-be-late?utm_source=twitter)

산업 . 경제

21세기 디지털혁명을 이끌어갈 ‘첨단기술창조협회’ 설립 (런던市)

– 런던市와 중앙정부는 5000만 파운드(약 860억 원)를 투자해 차세대 첨단디지털 기업을 양성하는 ‘첨단기술창조협회’(Technical & Creative Institute)를 설립하기로 함. 이는 정부 중심의 재원지원을 바탕으로 市가 시행하는 사업임. 이 협회는 런던에 위치해 런던을 세계 최고의 창조혁신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市는 올드 스트리트에 첨단기술도시(Tech City)를 조성해 첨단 디지털 분야의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게 됨. 이곳에 2만 4000개의 IT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는 파리市의 1만 5500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앞서는 수준이라고 市가 밝힘.
- 이 협회는 앞으로 기술 분야의 창조성 제고와 혁신을 선도하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매년 200개의 신생기업에 재원을 지원하고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첨단기술과 창조산업 관련 주요 국제 컨퍼런스를 연 2회 개최
 -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1000명의 젊은이를 매년 양성해 IT 기업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용이하게 함.
 - 약 5만 명의 청소년과 첨단창조디지털기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함.
 - 약 20만 명이 참석하는 디지털페스티벌 지원
 - 해외 투자 유치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develop-high-tech-institute-drive-capital%20%99s-21st-century-digital-revolution)

건 강 · 복 지

2013년 4월부터 ‘식품안전조례’ 시행 (베이징市)

- ‘베이징市 식품안전조례’가 2012년 12월 27일 베이징市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조례에 따르면 식품 생산·판매자가 독성이 있거나 해로운 식품을 생산·판매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평생 식품 생산과 판매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또한 식품 생산, 유통 및 음식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주요 책임자, 관리자, 담당자는 영업정지 후 5년 내에 식품 생산, 판매,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함.

- 식품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市는 식품안전과 식용농산품 품질 안전 추적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기존 식품안전 추적 정보시스템에서 나아가 식품 안전 추적정보 수집·공유·발표에 관한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의 생산·구매·가공·저장·운송·판매 전 과정의 식품안전 정보 추적을 실시할 계획임. 동시에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정부실적관리 평가심사에 포함시킬 예정임.
- 또한 폐기된 기름(油脂)을 원료로 가공한 식용유나 이러한 식용유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음식점 등에서는 기름 수집 용기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수집한 기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격을 갖춘 기업에 맡기도록 규정함.

(新华社, 2012. 12. 27)

행정 · 재정

市 소유 건물을 사회적 기업에 매각 또는 임대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 시행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지역공원 내에 있는 유서 깊은 건물을 국제 독서·웰빙 센터로 개조하는 사업을 전문 민간단체가 주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이에 따라 Calderstones Park에 있는 유서 깊은 건물인 맨션 하우스(Mansion House)가 국제 독서·웰빙 센터로 거듭날 계획임. 市는 맨션 하우스 복원과 독서 센터 건립, 운영 등을 지역 독서운동을 주도해온 사회적 기업인 The Readers Organisation에 맡김.
- 건물 보전 2등급 건물인 맨션 하우스는 본관뿐 아니라 마차를 세워두는 건물과 마사(馬舍)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복원을 통해 독서센터를 건립, 운영하게 된 사회적 기업인 The Readers Organisation은 지역기업으로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운동과 사업을 진행해옴.

- 국제 독서센터는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이 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 있게 책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 맨션 하우스는 그동안 시청 사무실로 쓰였으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되어 2012년 10월 매각 또는 장기임대 대상이 됨. 공개입찰 과정을 통해 市는 건물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복원을 통해 건물상태를 개선할 기관을 물색해왔으며, 경쟁입찰 과정에서 The Readers Organisation이 최종 선정됨. 건물의 역사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복원계획과 함께 공공성이 강화된 독서센터 운영계획이 큰 점수를 받음. 市는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하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기 위해 독서센터 설립사업을 최종 선정함.
- 市는 2013년 1월 Reader Organisation을 우선 개발자로 선정함. 6개월 동안 市와 사회적 기업 혹은 세계 독서센터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市는 Reader Organisation에 장기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됨. 계획에 따르면 독서센터는 2015년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갈 계획임.
 - 맨션 하우스는 1828년에 완공된 조지 왕조 시대 영주가 살던 주택으로 한때 600명이나 되는 하인을 거느렸던 선박왕 Cunard Line사의 대표가 거주했던 곳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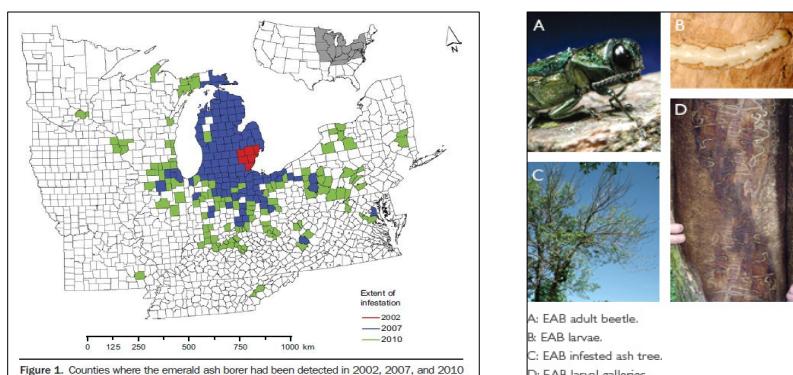
〈Calderstones Park 내에 위치한 맨션 하우스
건물 전경〉

(www.dalestreetnews.com/2013/01/11/new-chapter-for-mansion-house/)

도 시 환 경

‘병든 나무가 시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발표 (미국 미시간州 캔턴市)

- 미국 미시간주 캔턴(Canton)市에서 2002년 처음 발견된 병충해(Emerald Ash Borer)가 4년간 1억 그루의 나무에 영향을 미친 이후 병든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과 병충해로 인한 환경 변화가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미국 산림보호국은 주변지역 시민의 질병을 조사한 결과 심장과 호흡기 관련 질환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그런데 연구결과는 나무의 질병과 지역 주민의 질병 간에 관련성이 상당히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정확한 이유를 규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 그렇지만 나무가 가져다주는 공기정화 작용과 심리적인 스트레스 완화 효과, 심리적인 안정 효과 등과 관련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미 발표된 바 있어, 나무가 가진 여러 정화작용이 멈춤으로써 주변 도시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함.
- 산림보호국은 또한 도시지역의 나무들이 환경오염을 완화하는 경제적 효과가 매년 38억 달러(약 4조 15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함.



〈미국 중부지역 미시간에서 발생한 나무 병충해 전염시기별 분류(왼쪽).
병충해 Emerald Ash Borer(EAB)에 전염된 나무의 증상(오른쪽)〉

(www.arborjet.com/post/emerald_ash_borer/)

(www.theatlanticcities.com/arts-and-lifestyle/2013/01/sick-trees-make-sick-people/4450/)

유치원과 초등·중학교에 대기오염 경보 문자 발송 (중국 상하이市)

- 중국 상하이市는 최근 스모그 오염이 지속되자 유치원 및 초등 · 중학교를 대상으로 대기오염경보시스템을 구축함. 스모그가 발생하면 증가하는 초미세먼지는 특히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에 대한 대시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市 교육위원회와 환경보호국은 ‘유치원, 초등 · 중학교의 실외활동 미세먼지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실행령’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상하이 교육 감독조사 문자플랫폼’을 구축하고 실행 중임. 이는 스모그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市의 모든 유치원장, 초등 · 중학교장 및 교사에게 대기오염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각 교육기관은 대기 중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학생들의 실외활동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기오염 경보 문자를 통해 학교의 체육활동 및 실외수업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 할 수 있으며, 조정사항은 교육당국에 보고함.
- 당일 대기오염정도가 ‘경도 오염’일 경우 실외활동의 1/4을 취소하고, ‘중도 오염’일 경우 실외활동의 절반만 실시하며, ‘고도 오염’일 경우 모든 실외활동 을 취소함.
- 경보 문자는 오염원, 대기오염정도, 관련 요청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市 환 경감독기관은 단기간 오염 경계 예보 및 계절성 대기오염 경계에 대한 소식 도 알려줄 예정임.
-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혹은 조기 경보 해제 시 문자뿐 아니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인터넷사이트에도 이 내용을 게시할 예정임. 조기경보뿐 아니라 실시간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오염 조기경보 내용도 함께 게시함.

(www.zhoushan.cn/newscenter/czj/201301/t20130118_578121.htm)

(<http://edu.people.com.cn/BIG5/n/2013/0116/c1053-20216190.html>)

도 시 교 통

2. 교통혼잡으로 악명 높던 도시가 2년 만에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상’ 수상 (멕시코 멕시코시티)

○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인 멕시코의 멕시코시티는 그동안 혼잡한 도시교통과 심각한 수준의 도시공해에 시달려 왔음. 멕시코시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쇼핑몰 운영, 자전거 공유시스템 구축, 자전거 전용도로 도입, 간선버스노선 도입 등을 추진해왔음. 이에 힘입어 지속가능한 도시에 수여하는 ‘2013 Sustainable Transport Award’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룸.

- 2011년 초 IBM사가 세계 각국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혼잡도, 대중교통 편의성, 통행시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시티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2011년부터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설계, 혁신적인 대중교통시스템 도입, 승용차 운행억제 수단으로서 강력한 도심 주차 억제 정책, 자전거 대중화 등을 추진해온 결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변모하는 데 성공함.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음.
 - 2011년 매우 긴 간선버스노선급행체계를 구축해 공항과 구도심을 연결했으며 구도심의 좁은 도로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비율을 높임.
 - 또한 자전거정류장 90개 지역에 ‘Ecobici’라 불리는 1200대 규모의 자전거공유시스템을 도입해 자전거와 보행 중심 여건을 조성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도심의 주차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좁은 도로의 주차구역을 없애

고 도심 전체의 노상주차를 줄이는 한편 보행자를 위한 보행여건을 개선해 승용차 통행을 억제함.



<극심한 교통혼잡과 도시공해로 악명 높았던
멕시코시티의 모습>



<2013년 지속가능한 도시상을 수상한 멕시코시티의
BRT 버스>

(<http://news.nationalgeographic.com/news/energy/2013/01/130116-mexico-city-sustainable-transport-award/>)

도심 지상전차의 디자인 개선으로 서비스 및 도시경관 개선 (캐나다 토론토市)

- 캐나다 토론토市는 지난 90여 년간 도심 전차를 운행해 왔는데, 그간 4번의 기술 및 디자인 개선과정을 거쳤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심전차는 점차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락한 도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음.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디자인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市는 도심전차를 운행하는 세계 여러 도시의 사례를 참고해 2013년도에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할 예정임.
- 市는 그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차를 디자인하는 데 주력해왔음. 이에 따라 에너지소모가 적고 도심 차량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디자인함.



〈유럽 주요 국가의 최신 도심전차 디자인의 예〉

- 토론토 도심전차는 기존의 전차노선을 연장해 총 11개 노선, 82km 구간의 도심 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으로 개선될 예정임. 市는 매일 2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며, 자가용 없이도 도심지역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형 교통수단임을 강조함. 이번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00% Low Floor Design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이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함. 또한 좌석 수와 넓이를 늘리고 접이식 좌석도 추가 확충함.
- 출입문의 경우 기존 전차보다 너비를 개선해 유모차나 트렁크형 가방, 훈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자전거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전차 한 끝에 3개 유형의 출입문을 설치함.
- Passenger Assistance Alarms, Emergency Intercoms도 함께 설치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창문이 벽면의 2/3 이상 차지하도록 해 도심 경관을 충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항균 손잡이도 설치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기술 개선이 이루어짐.



〈2013년에 새롭게 선정된 토론토 도심전차
디자인〉

- 새로운 디자인의 도심전차가 현재 1개 구간에서 시험운행 중이며 2014년 전 노선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임.

(www3.ttc.ca/About_the_TTC/Projects_and_initiatives/New_Streetcars/About_The_Process/index.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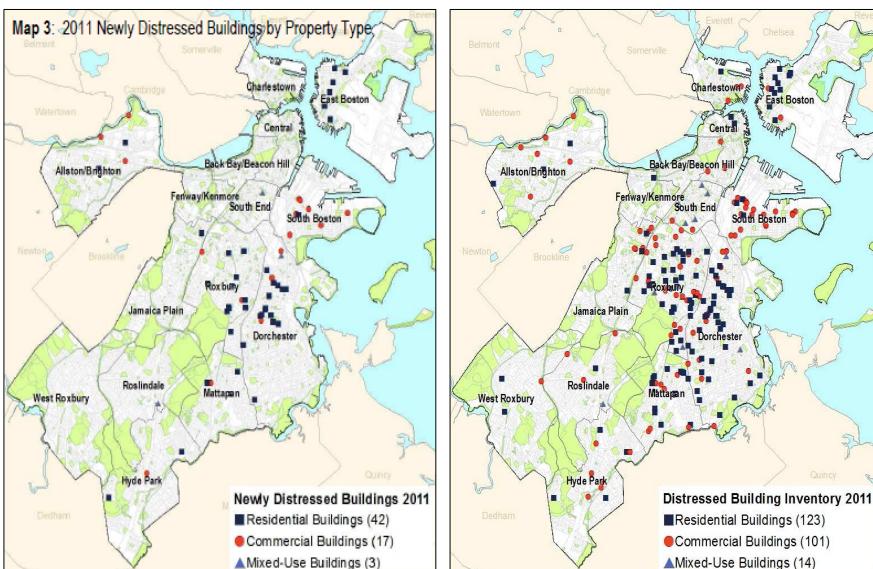
도시계획 · 주택

3. 공실건물 현황에 대한 연간보고서 발간 및 개보수 지원 (미국 보스턴市)

- 미국 보스턴市는 버려지거나 공실상태인 건물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해왔음. 공실건물 현황자료에는 주택, 상업 및 산업용, 혼합용도 건물과 기타 주차장 및 창고 건물도 포함하고 있음. 공실건물은 용도상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 화재로 인한 훼손, 기타 손상 및

기능상·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공실 등으로도 구분됨. 공실 건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 단기간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도 함.

- 보고서에 수록되는 공실건물은 1999년 이전 공식적으로 ‘버려진 건물’이라고 명시하던 용어를 ‘공실건물’이라 수정하고, 매년 최신 건물 현황을 수록하고 있음.
 - 사용되지 않는 건물을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리노베이션 및 재건축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새로운 공실건물이 발생함. 2003년부터 시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간 공실건물 78%가 리노베이션되었거나 다시 사용 중임. 관련 웹사이트에서는 잠재적인 개발자와 건물의 소유주가 직접 개발 및 리노베이션에 대해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1년도 새로 조사된 공실건물>

<2011년도 전체 공실건물>



<공실건물(왼쪽)과 리노베이션 이후 모습(오른쪽)>

- 市는 노후건물 관리방법의 일환으로 Renew Boston 프로젝트도 함께 시행함. 이 프로젝트는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해주고 건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전체 비용의 75%, 최대 약 200만 원까지 할인해줌.
 - 市는 낙후되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증가하는 데 반해 이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 근거해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함.
 - 이번 프로젝트에는 사업용, 임대용 건물뿐 아니라 개인 주택까지 포함되어 부동산 보유 시민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개보수 대상에는 상수도시설, 지붕 및 벽면, 건물 조명 등이 포함되며 건물 소유주가 직접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지붕 태양열전지 설치 지원>



<지붕 안쪽면 냉난방시설 설치>

(www.cityofboston.gov/dnd/pdr/Distressed_Buildings_Reports.asp)

(www.renewboston.org/)

(www.cityofboston.gov/residents/)